

■ 주요 기사

○ '17년 고용전망 관련(4건)

동아	제조업 가동률 70% '허덕'... 실업률도 16년만에 최악 위기
매경	제조업 가동률 7년만에 최저...내년에 고용절벽
한경	외환위기 이후 '최악 실업대란' 몰려온다
한겨레	"내년 실업률 3.9%...16년만에 최고"

○ 日총리 근로자 격차완화 발언 관련(2건)

중앙	[간추린 뉴스] 아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줄여야"
한겨레	일본, 총리가 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촉구

○ 청년·여성 고용정책 관련(2건)

한경	[실효성 없는 청년 고용대책] 연 2조 퍼붓고도 청년 백수 100만명...' 체감 실업률 20%' 굳어진다
한겨레	청년·여성 취업 심각한데...4월 나온 정부 정책 '낙제점'

■ 주요 칼럼·사실

○ 노동개혁 관련 (1건)

한경	[최종석의 뉴스 view] 노동개혁 팽개친 정부·국회...독일을 보라
----	--

○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 (1건)

조선	[한마디] 기업 고용에 '출산 여성 쿼터'를
----	--

○ 근로자 국민연금 체납 관련 (1건)

동아	[열린 시선/김형모]체불 근로자에 국민연금 납부 길 열어줘야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한마디] 기업 고용에 '출산 여성 쿼터'를 A37면
		내용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정책은 대부분 기술 교육을 통한 것이어서 화이트칼라 여성에게는 실효성이 없음. 몇 해 전 기업은행 등에서 했던 경력 단절 여성 특별 채용 등이 더 많은 기업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동아	노동	제목	제조업 가동률 70% '허덕'... 실업률도 16년만에 최악 위기 A8면
		내용	내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3.9%로 올해(3.7%)보다 0.2%포인트 높아져 외환위기 후인 2001년(4.0%)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제목	[열린 시선/김형모]채불 근로자에 국민연금 납부 길 열어줘야 A37면
		내용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체납은 노년의 삶을 괴롭히는 '미래의 임금체불'.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
중앙	노동	제목	[간추린 뉴스] 아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줄여야" A24면
		내용	아베 일본 총리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너무 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
매경	고용 복지	제목	제조업 가동률 7년만에 최저...내년에 고용절벽 A1면
		내용	조선업 등 기업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 '고용절벽'이 닥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 내년 실업률은 3.9%에 달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올해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노동	제목	[최종석의 뉴스 view] 노동개혁 팽개친 정부·국회…독일을 보라 4면
		내용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혁을 이끌고,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합리적인 정책을 계승하는 외국에서 배워야 할 때.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메르켈 정부의 합작으로 지난 10월 기준 독일 사상 최저치인 실업률(6.0%) 기록
		제목	일본, 임금 올린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8면
		내용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2% 이상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도 절반으로 줄어듬
		제목	중국, 노동시장 유연성 높인다 8면
		내용	중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요건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더디게 하고 있다는 판단
	고용 복지	제목	영국, CEO '고액연봉 규제' 후퇴 8면
		내용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는 정책을 내놨다. 주주들이 매년 경영진의 연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이 크게 축소
		제목	철도파업 연말까지 지속뎀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손실 29면
		내용	최장기 철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원의 임금손실액이 1인당 평균 11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까지 파업이 지속되면 내년 성과급과 연차수당 중 일부를 못 받게 돼 임금 손실은 1인당 2000만원을 넘게 됨
		제목	외환위기 이후 '최악 실업대란' 몰려온다 1면
		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내년 실업률이 3.9%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직후인 2001년(4.0%) 후 최고치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0월 말 기준 10.1%로 1999년(10.9%) 후 최악
고용 복지	제목	[실효성 없는 청년 고용대책] 연 2조 퍼붓고도 청년 백수 100만명…'체감 실업률 20%' 굳어진다 4면	
	내용	정부가 매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24개월째 2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청년 체감 실업자' 100만명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옴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고용 복지	제목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 10명 중 2명은 ‘남성’ A14면
		내용	올해 1~9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남성 공무원은 전체 육아휴직자 6075명의 20.0%인 1215명으로 집계. 인사처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요건이 개선되고, 조직 문화가 유연해진 점을 증가 요인으로 분석
	환경	제목	‘가습기 사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A14면
		내용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65·현 롯데물산 대표)에게 금고 5년,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모씨(61)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50)에게 징역 7년이 구형
한겨레	노동	제목	“내년 실업률 3.9%…16년만에 최고” 12면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내년 고용 전망. 구조조정, 경기둔화 등 원인. 베이비부머 60대 진입으로 취업자수 둔화
		제목	일본, 총리가 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촉구 14면
		내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비정규직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 아베 정권은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도입하거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
		제목	청년·여성 취업 심각한데…4월 나온 정부 정책 ‘낙제점’ 17면
내용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실적이 목표 대비 60%에 그쳐 사실상 낙제점. 정부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대해 보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끝>